

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참 고 자 료</b>	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7.9.6.(수)	
책 임 자	금융위 보험과장 손 주 형(02-2100-2960)	담 당 자	태 현 수 사무관 (02-2100-2962)		

## 제 목 : ‘숨은 보험금 찾아주기’ 주요내용

①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‘숨은 보험금’은 약 7.6조원 수준(‘16년말 기준)

❶ 중도보험금(지급사유 발생후 만기도래 前) : 약 5.1조원 / 283만건

\* 중도보험금 예시 : 축하금, 자녀교육자금, 건강진단자금, 효도자금, 장해연금, 배당금 등

❷ 만기보험금(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前) : 약 1.2조원 / 24만건

❸ 휴면보험금(소멸시효 완성 後) : 약 1.3조원 / 640만건

② 이러한 ‘숨은 보험금’이 발생하는 것은

-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<sup>①</sup>,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<sup>②</sup>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음

①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전 등에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, 주소불명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

②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

- ‘01.3월 이후 체결된 계약은 처음 1년간은 예정이율의 50%(약 1% 초중반), 그 이후(소멸시효 도래 전까지)에는 고정금리 1%의 이자 제공되고,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제공되지 않음
- 단, ‘01.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중에는 ‘예정이율 + 1%’의 금리를 제공하는 계약도 존재

③ 이에 따라, 금융위는 보험계약자가 숨은 보험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‘통합 조회시스템’을 17년말까지 도입할 계획

○ 이러한 ‘통합 조회시스템’을 만드는 목적은

- 찾아갈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모르는 고객 본인이 언제든 손쉽게 숨은 보험금 발생 여부,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④ 또한, ‘통합 조회시스템’을 통해서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고객이 보험금을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금리 등 필요한 정보\*는 당연히 제공할 것임

\* ‘01.3월 이전에 체결된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, 숨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보험약관에 따라 현재 시장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, 보험계약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

- 이를 위해, 보험계약의 금리 및 약관내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의 궁금증 해소자료(FAQ) 및 관련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적극 제공·안내할 계획임
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prfsc@korea.kr



넓게 들었습니다  
바르게 알겠습니다